1인가구 70% 연간 3000만원 못 번다…기초수급 비중 70%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발표
1인 가구 717만…3가구 중 1가구 '홀로족'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 두 집 건너 한 가구는 혼자 사는 집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70%는 연간 소득 3000만원을 벌기도 어려웠다. 1인 가구 평균 자산은 2억 11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연간 자산 규모가 3.4% 증가할 동안 빚은 13%나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 중 71%는 1인 가구로 홀로 사는 가구의 살림살이가 일반 가구에 비해 더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700만 돌파, 3가구 중 1가구 '나혼자 산다'

통계청이 7일 내놓은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2144만8000가구)의 33.4%인 716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64만3000가구)보다 52만30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1인 가구 비중은 1.7%포인트(p)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2인 가구 28.3%(607만7000가구), 3인 가구 19.4%(417만 가구), 4인 이상 가구 18.8%(403만6000가구)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전체 1인 가구의 19.8%(141만8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17.1%(122만6000가구), 60대 16.4%(117만6000가구), 50대 15.4%(110만 1000가구), 40대 13.3%(95만 가구), 70세 이상 18.1%(129만5000가구) 등이다. 29세 이하와 40대, 50대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30대와 60대 비중은 늘었다. 60대 1인 가구는 13만7000가구 증가했는데 비중도 0.8%p나 커졌다.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19년 30%(30.2%)를 넘었고, 2030년 35.6%로 증가한 뒤 2050년에는 40%(39.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영향으로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2050년 7.5%로 줄어드는 반면, 70세 이상 비중은 4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지역별 비중은 경기가 21.5%로 가장 높고, 서울(20.8%), 부산(6.8%), 경남(6.3%) 순이다. 29세 이하와 30대 1인 가구는 서울, 경기, 부산 비중이 높았다.

◆1인 가구 평균 소득 2691만원…전체 가구 42% 수준

1인 가구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년보다 11.7% 늘어난 2691만원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얼핏보면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가구(6414만원)와 소득 격차는 3723만원으로 전년(3716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소득구간별로는 1인 가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7%가 연간 1000만~3000만원 미만을 벌었다. 21.0%는 1000만원 미만으로 전체 1인 가구 중 67.7%는 연간 3000만원을 벌지 못했다.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9.8%, 1억원 이상 고소득 1인 가구는 1.7%에 불과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22.2%)과 사업소득(11.6%)은 비교적 크게 늘었지만 자산시장 침체로 재산소득(-8.4%)과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5.8%)을 비롯해 사적이전소득(-3.5%) 등은 줄었다.

1인 가구 소득원천별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소득이 57.7%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15.8%), 공적이전소득(15.6%) 순이다. 근로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64.3%)보다 6.6%p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6.2%p), 사적이전소득(3.9%p)의 비중은 높았다.

◆1인 가구 자산 697만원 불릴 때 빚도 409만원 늘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자산은 2억1108만원으로 전년(2억411만원) 대비 3.4%(697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5억4772만원)의 38.5% 수준이다.

전체 가구 자산과 1인 가구 자산 격차는 3억3664만원으로 전년(2억9842만원)보다 더 커졌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은 29.6%로 높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은 70.4%로 낮았다.

1인 가구 부채는 전년 대비 12.9%(409만원) 증가한 3583만원으로 전체 가구(9170만원) 대비 39.1% 수준이다. 1인 가구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4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16만1000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168만8000가구)의 70.9%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해 전체 가구(12.2%)보다 2.4%p 높았다.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2015년 60.3% 수준에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한 편이다. 지난해 1인 가구 중 42.3%가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가구 월세 비중보다 18.9%p 높다. 반면 자가를 보유한 1인 가구는 34.4%로 전체 가구 자가 비중보다 23.0% 낮았다.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이 42.2%로 가장 많고, 아파트(33.1%), 연립·다세대 주택(11.5%) 등이며, 주택이외 거처에서 지내는 비중도 11.3%로 비교적 높았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이 32.4%로 가장 높았고, 월세 보조금(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 순으로 조사됐다.

최이슬 기자

'홈플대란' 뭐 살까…소고기부터 홈파티 용품까지 할인전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 대상, 특가 세일 진행

홈플러스가 1일부터 진행한 연말 대규모 할인전 '홈플대란' 2주차를 맞아 연말 홈파티 먹거리와 각종 홈파티 용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먼저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세일을 진행한다. 8일부터 11일까지 척아이롤을 비롯한 호주산 소고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제철 방어회(300g·팩·국내산)는 1만9900원에,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구룡포 꽁치과메기(150g, 정상가 1만4900원)를 4000원 할인한 1만900원에, 농협안심한우 구이류(등심·안심·채끝·양지·치마살·업진살·부채살)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흰다리새우(마리·에콰도르산, 정상가 500원)와 블랙타이거새우(마리·말레이시아산, 정상가 1580원)를 각각 250원, 790원으로 반값 할인 판매하고, 9일부터 11일까지는 매장에서 무료로 찜 서비스가 가능한 활랍스터(마리·500g·캐나다산, 정상가 2만9900원)를 20% 할인한 2만3920원에 선보인다.

당당치킨 시리즈 신메뉴인 '당당 트리플갈릭치킨'(8990원)은 12월에만 한정 판매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신메뉴 2종 홈플식탁 와사비크래미롤(8입, 정상가 6990원)·홈플식탁 매콤마요날치알롤(8입, 정상가 5990원)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 판매한다.

CJ 중화요리 간짜장(630g, 7490원)과 CJ사천마라탕면(434g, 7490원) 등을 8일부터 11일까지 1+1 판매하는 등 '유니버셜스튜디오' 컬래버레이션 신상품을 1+1에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플레이팅 식기와 도자기도 준비했다.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가스파드 앤 리사(40%), 포트메리온(최대 40%), 덴비(30%), 등 주요 인기 브랜드 도자기 상품과 슈피겔라우, 보르미올리, 루미낙 등 브랜드 와인잔(최대 30%)을 할인 판매한다.

김재환 기자

마이셰프, '2022년 연말 감사제' 진행

마이셰프가 이달 11일까지 공식몰을 통해 '2022년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감사제 기간 동안에는 마이셰프 인기 밀키트를 최대 36% 할인가에 판매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밀푀유나베 ▲허챠밍 정글&딥 냉파스타 ▲일품 소고기 고추잡채 꽃빵 ▲마이셰프X트레져헌터 우정분식 꿀꺽 야끼만두 등이 있다. 할인 행사와 함께 프로모션 쿠폰을 제공한다. 자사 공식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에게는 5000원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신규 회원 가입 시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마이셰프 관계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고객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고자 베스트 상품으로 구성된 연말 감사제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선옥 기자

삼합·하멜등대·몽돌·옥수수·갓도넛…여수 '특화빵' 인기몰이

옥수수빵·갓도넛 등 '특화빵 5총사' 매출 급성장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모양도 재료도 맛도 독특한 '특화빵 5총사'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빵으로 옥수수빵, 갓버터 도너스, 삼합빵, 하멜등대빵, 몽돌빵이 꼽힌다.

이들 빵의 공통점은 청년과 여성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했다.

여수에는 옥수수, 돌산갓, 거문도쑥 등 대표 특산물이 있다.

이 중 옥수수를 활용한 빵 종류는 옥수수빵, 옥수수 치아바타, 옥수수 소금빵 등 다양하다.

옥수수 모양의 옥수수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코너(corner)는 전년 대비 310%, 옥수수 치아바타와 쿠키를 만드는 옥수는 66% 상승한 약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수의 특산물 돌산 갓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갓버터도나스는 갓과 도넛의 이색적 조화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서울에도 분점을 냈다.

여수삼합당은 여수삼합으로 유명한 '갓김치·문어·돼지고기'를 빵 속에 다져 넣은 '여수삼합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삼합빵은 여수 갓김치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매력적이며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든든함이 특징이다.

여수 거문도의 해풍쑥을 활용한 빵도 있다. 보통 쑥을 활용한 후식은 떡을 떠올리기 쉽지만,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빵도 최근 출시했다.

최근 개업한 슈블렌은 여수 거문도 쑥크림과 여수 옥수수크림이 들어가는 몽돌빵을 출시해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독특한 모양과 맛의 특화 빵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진 인증 욕구를 불러일으켜 짧은 시간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의 빵지순례'를 적극 추천한다"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먹방' 대신 '소식좌'가 뜨고 있다

유통 업계도 '소식좌' 제품들 잇따라 출시

많은 양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는 '먹방' 대신 '소식좌(적게 먹는 사람)'가 뜨고 있다. 적은 양의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트렌드와 더불어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 '나홀로족'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소식(小食)을 위한 제품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통업계는 식재료나 음식의 소분과 보관을 돕는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식의 첫걸음은 위생적인 소분이다. 사고 싶은 식재료나 음식이 대용량이라면 사놓고 바로 깔끔하게 소분해 두면 조금씩 오래 먹을 수 있다. 코멕스산업(코멕스)이 새롭게 출시한 '바이오 항균위생용품'은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99.9%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인 비스페놀-A(BPA)도 검출되지 않는다.

바이오 항균위생용품은 ▲항균백 4종 ▲항균롤백 7종 ▲항균장갑 4종 ▲항균지퍼백 2종 등 미니부터 소·중·대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총 17종이다. 항균지퍼백은 지퍼가 두 줄로 구성된 이중 구조다. 내용물이 새거나 지퍼백이 쉽게 열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오랫동안 두고 먹을 식재료와 음식은 소분해 냉동 보관이 필수다. 코멕스 '스텐 냉동보관용기'는 냉동실 식재료 보관에 특화된 제품이다. 바다면에 돌출된 웨이브 구조를 넣어 식재료가 바닥에 달라붙지 않아 냉동 상태 재료도 쉽게 꺼낼 수 있다. 뚜껑도 냉동실 사용에 용이하도록 냉기에 강하지만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다.

소식좌에게 걸맞은 적은 용량으로 나눠 소분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용기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코멕스 '싱싱보관용기'는 350㎖, 700㎖ 등 소용량부터 5.3ℓ까지 총 9종의 다양한 사이즈로 소분하는 양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전 사이즈에 채반이 내장돼 있어 기름이나 수분 제거는 물론 냉동된 음식을 편하게 꺼낼 수 있다. 투명한 소재다.

식재료 소분이 어렵다면 중량을 줄인 제품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쁘띠 컵밥 콘셉트의 '치즈불고기컵밥', '치킨마요컵밥' 2종을 출시했다. 중량은 200g 내외다. 기존 도시락 메뉴의 중량 대비 절반 이하다. 1개 도시락을 두세 끼로 나눠 먹는 '소식좌' 특성을 반영해 보관이 용이한 컵밥 용기를 별도로 개발해 적용했다.

신선도가 중요해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과일은 조각으로 구매해 적은 양을 한 번에 즐기면 좋다.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껍질없는 간편한 조각사과'는 껍질을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자른 100% 국내산 사과다. 360g과 150g의 두 가지 규격이다. 이마트24는 올해 초부터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조각 과일들이 혼합된 소용량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오유나 기자